

星州 한개마을의 立地와 配置計劃에 나타난 方位的 특성에 관한 연구

이 현 병

(부천대학 건축과 조교수)

김 성 우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주제어 : 입지, 배치계획, 자연방위, 지형방위, 건축방위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전통건축은 땅의 이치를 살피어 적합한 장소에 터를 정하고 배치를 하였다. 대부분의 전통마을은 지리적 요소를 최대한 반영하여 공간을 구성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리적 요소는 山, 水, 方位로써 마을 입지선정 및 배치계획 그리고 공간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왔다. 지금까지 한국전통마을에 대하여 風水적인 논의는 있어왔으나, 마을 形局과 배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방위적 관점에서 마을의 공간구성을 실증적으로 밝히려는 시도는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¹⁾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전통마을의 입지와 배치계획의 관계를 방위적 상관성을 통하여 밝히려 하며, 여기에서 분석하는 방위는 태양의 순행에 의

해서 정해지는 자연방위, 마을형국에 의한 지형방위 그리고 건축물의 坐向 분석에서 나타난 건축방위이다. 이러한 방위적 특성을 통하여 건축방위는 자연방위와 지형방위의 상관성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하며 坐向을 정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전통마을의 배치계획은 자연방위 및 지형방위에 대하여 건축방위가 어떻게 대응하여 좌향을 정하였는가의 문제가 된다. 본 연구는 하나의 마을을 선정하여 그 마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방위현상을 심도 있게 조사분석 하려고 한다. 다른 마을과 비교 또는 여러 마을에서의 방위적 경향은 다음단계의 연구 과제로 삼는다.

이러한 입지와 배치계획의 방위적 상관분석은 한국전통마을의 공간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리라 본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연구대상마을을 여러 곳으로 확산시키기보다는 하나의 마을로 局限하려고 한다. 그것은 하나의 마을에서 나타나는 방위적 현상을 자세하게 분석하여 그 결과를 앞으로 이어질 다른 마을에 대한 조사 분석의 근거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1) 마을입지와 배치에 대하여 다수의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한국전통마을에서 입지와 배치는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그 상관성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풍수의 근본원리라 할 수 있는 방위론을 적용하여 입지와 배치의 상관적 관계를 구체적이며 실증적으로 밝히려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한개마을에 대한 기존연구는(이우희, 1998) 입지에 대한 풍수적 해석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입지와 배치의 상관적 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 본 연구에서 하나의 대상마을을 선정할 때, 風水 및 形局적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마을을 찾으려 하였다. 그것은 이러한 이상적인 경우에 대하여 먼저 규칙적인 경향을 확인한 후 다른 마을들에서의 변형적 적용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표적인 마을로써 경북 성주 한개마을²⁾을 선정하였다. 연구는 문헌조사 및 현지답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문헌은 邑誌 및 古地圖 그리고 지형도를 참고하여 마을입지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마을입지의 방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형모형³⁾과 지도, 그리고 현지조사를 상호 보완해 가면서 부족한 점을 보충하였다. 또한 한개마을에 대한 조사보고서⁴⁾ 및 관련 논문⁵⁾은 마을에 대한 배경적인 정보를 주었으며, 이 중에서 마을전체배치도는 기초적인 자료로 인용되었다.

분석을 위하여 동서남북의 자연방위, 주변자연환경의 형국에 따른 지형방위 그리고 건축물들이 향하는 건축방위의 세 가지 방위를 상호비교 하였다. 이러한 비교는 건축방위가 자연방위와 지형방위의 영향을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받는가 하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함 이었다. 마을배치도⁶⁾에 나타난 건축물의 좌향을 파악한 후 그것과 지형방위 및 자연방위와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

2. 대상 마을의 개요 및 지리적 특성

성주 한개마을은 세종 27년(1445) 晉州 牧使 李友가 입향하여 星山李氏 21세 月峯 李廷賢(1587-1612)이 정착, 마을을 형성한 곳이다.⁷⁾ 현재 60여 호의 전통주택이 있으며, 하회댁을 비롯한 7채의 주택이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 보존⁸⁾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배치도에 나타난 주거용 건물 60채, 비주거용 건물 6채를 조사대상 건물로 정하여 좌향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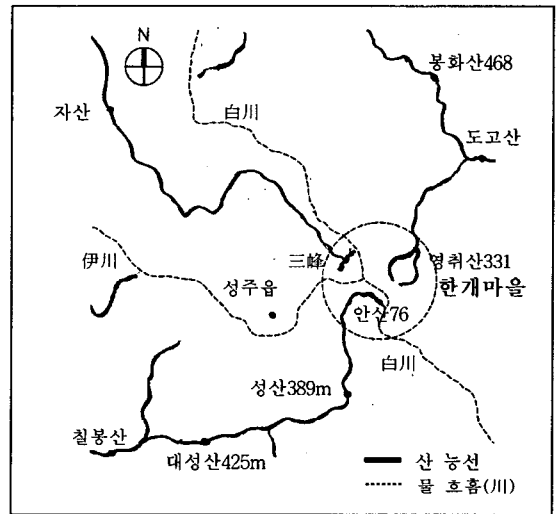


그림1. 한개마을 주변 지리체계

한국의 산맥은 전체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백두산에서 발원한 용맥이 세력에 따라 도읍, 읍, 촌락의 局을 만든다⁹⁾. 한개마을 주변 지리체계는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한 산 능선이 흘러와 멈추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1에서 한개마을 전체적인 局勢는 금오산(977m)에서 내려오는 산 능선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산(영취산)과 가야산에서 出脈하여 형성된 안산, 그리고 백마산에서 뻗어 내려 白川 앞에 멈춰선 三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요소 중 주산은 마을의 지리적 상징성 및 공간적 위계 그리고 방위설정의 기준이 되고 있

2)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성주읍에서 북동쪽으로 7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3) 마을입지의 지리적 방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1/5000지형도를 기본으로 지형모형을 제작하여 분석하였다.

4) 연세대학교 건축역사이론연구실, 『성주한개마을 연구 보고서』,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1. 및 김일진, 『전통건축물 보존지구 조사보고서 성주한개마을』, 문화재관리국, 1988.

5) “이용희”, 『성주한개마을 입지의 풍수적 해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1998 및 “주은영”, “김순일”. 『한개마을의 당내와 위계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1995 그리고 “박명덕”, 『영남지방 동쪽마을의 분파형태와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학위논문. 1992. “박명덕 ” 『조선시대 주거건축의 형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지방의 한개, 묘골마을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3.10 등을 참조함.

6) 한개마을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본 연구를 위해 제작도 한 배치도.

7) “박명덕 ” 『조선시대 주거건축의 형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지방의 한개, 묘골마을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3. 10 p.102 인용.

8) 성주군, 『문화재편람』, 2001, 성주군

9) 최원석, 풍수의 입장에서 본 한민족의 산 관념, 서울대 대학원 석사, 1992. p44

다.

한개마을은 입지의 생김새가 분명한 가장 전형적인 風水形局을 보여주는 마을이다(그림2 참조). 주산과 안산의 형태가 명확하고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한 입지는 대상마을로 선정하기에 적합하였다. 또한 건축배치의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는 씨족 마을로서 그 건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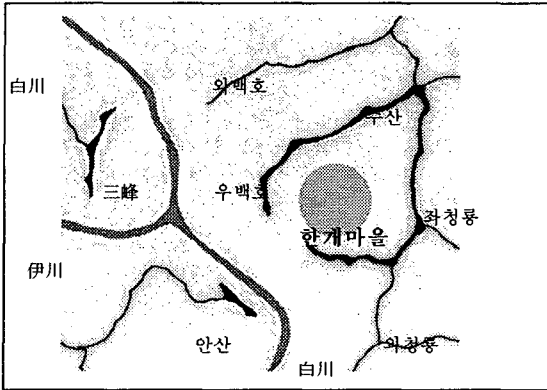


그림2. 한개마을 형국도¹⁰⁾

연구에서 논하는 마을 입지의 영역은 주산 및 안산 그리고 좌청룡, 우백호 등이 형성하는 마을 形局이 주가 되며, 마을 앞을 흐르는 白川과 서쪽에 위치한 三峰 일부를 포함하였다. 그림2에서 한개마을 주산은 북동쪽에 위치하여 두 팔을 벌려 감싸 앉듯 좌청룡, 우백호를 이루면서 마을 영역을 형성한다. 안산은 주거영역의 열린 부분에 면하여 주산과 마주 하고 있다. 또한 외백호, 외청룡이 우백호, 좌청룡을 잘 감싸주어 마을형국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우백호 끝나는 부분 건너편에 세 개의 아름다운 봉우리를 가진 三峰이 있으며 이 봉우리는 마을의 건축방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마을영역에서 보았을 때 물 흐름은 북서방향에서 내려오는 白川의 물과 서쪽에서 흘러온 伊川의 물이 三峰 앞에서 合流하여 마을 앞 안산까지 남동방향으로 흐른다. 이 물은 안산을 지나 외청룡 부분에 이르러 남쪽방향으로 흐르다가 다시 남동방향으로 선회하여 흐르면서 낙동강에 合流한다.

3. 자연방위 및 지형방위 분석

자연방위는 태양의 순행에 의한 절대방향을 의미한다. 자연 방위자체는 고정된 방위이므로 변동의 여지가 없고 따라서 논란이 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자연방위에 대하여 지형방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모든 마을의 입지는 자연지형에 따라 특정방위가 형성되게 마련이며, 그것은 마을마다 다르다. 이러한 자연형국에 의하여 생기는 방위를 지형방위라고 부를 때, 지형방위는 마을의 위치, 주산 및 안산의 위치 그리고 좌청룡, 우백호의 분포 및 방향등의 상관적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지형방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정해진 하나의 정론은 없다. 가장 중요한 방위적 軸은 주산, 마을의 주거영역 그리고 안산이다. 이러한 중심축에 대하여 좌청룡, 우백호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부수적인 방위 결정요소라 할 수 있다. 주산과 안산은 산봉우리들이 있음으로 해서 방위를 정하는 기준 역할을 한다. 그 외에 마을은 봉우리와 같은 하나의 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필요할 경우 마을이 분포되어 있는 영역의 공간적 중심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개마을에서는 그림3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을 주산의 정상부는 주거영역의 중심부¹¹⁾로부터 북동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은 자연방위 남북축에 대하여 약 40도의 편차각을 이루며, 이곳에서 남서방향으로 지형, 지세가 낮아지고 있다. 또한 마을형국은 좌청룡, 우백호가 주산에서 뻗어 나와 남서방향으로 열려있는데, 그 열린 범위는 196~256도(열린 방위각 60도)가 된다. 그 열린 방향에 마주하여 안산이 위치한다. 안산은 두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다. 서쪽방향에 가까운 76m 높이의 봉우리와 남쪽방향에 가까운 55m의 조그마한 봉우리가 있다. 안산의 봉우리가 하나이었을 경우에 지형방위 축을 설정하는 것이 좀더 간단하였겠으나 한개마을에서와 같이 2개의 봉우리로 나타날 때에 어떻게 방위 축을 정했는가하는 것은 흥미 있는 검토사항이 된다. 서쪽의 봉우리가 더 높지만 주택들이 이 봉우리를 안산으로 고정시켜 향하

10) 1/5000 지형도를 토대로 표현하였음.

11) 마을에서 주거영역의 중심부는 마을배치도에 나타난 주택들의 분포 범위에 따라 그 중심부가 어디인지 검토한 결과 공간적 중심과 종택의 위치가 가깝게 일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택을 주거영역의 중심부로 일단 지정하였다. (그림5 배치도 참조)

지만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였다.

주거영역의 중심부와 주산의 정상부를 연결하는 축은 안산의 두 봉우리사이를 지나간다.(그림3의 ①)에 해당하며 그 방위각은 220도임) 좌청룡과 우백호가 만드는 서남쪽의 열린 범위(196~256도) 중간지점을 주산의 정상부와 연결시켰을 때 비슷한 두 안산봉우리사이를 지나가지만 마을 중심부를 지나가는 연장선과는 약간의 차이가 난다.(그림 3의 ② 221도) 한편 두 봉우리의 물리적 중간 지점은 그림 3의 ③에 해당한다. (221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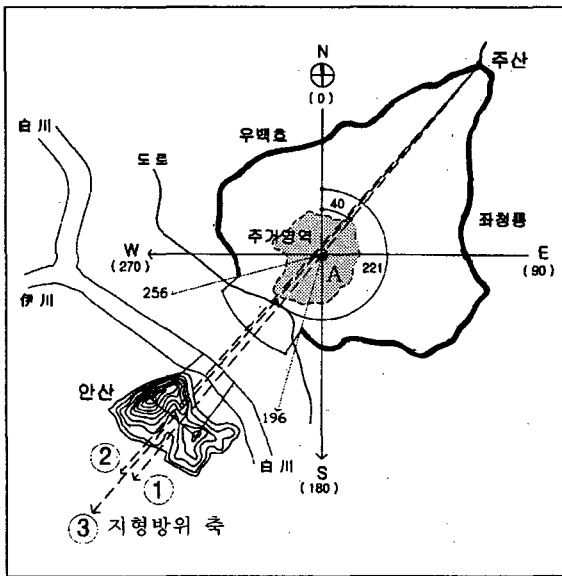


그림3. 자연방위, 지형방위 분석도

①주산과 주거영역의 중심부를 연결한 축선. ②마을형국이 열린 부분의 중간지점과 주산의 정상부를 연결한 축선. ③안산 두 봉우리 사이의 중간지점.
 *A지점은 주거영역의 중심부를 나타내는 종택의 위치임
 * 지형방위 축은 주산과 주거영역의 중심부 그리고 안산의 두 봉우리사이의 중간점을 연결한 축선임.

이 세 가지 지점은 안산의 두 봉우리의 연장선과 만나는 곳이 거의 하나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산의 봉우리와 마을의 중심영역 그리고 안산의 두 봉우리의 중간지점을 지나가는 선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축의 설정은 주택들이 향하는 건축방위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마을형국의 지형적 상황만으로 정할 수 있는 축으로서, 한개마을의 경우 이

축의 방향이 지형방위라고 설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지형조건과 다른 마을에서는 좌청룡, 우백호 능선 그리고 마을 형국이 열린 방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상황에 적합하게 따로 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4. 건축방위 분석

건축방위는 건축물의 좌향¹²⁾을 측정하여 24방위로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 적용한 24방위는 그림4와 같으며, 이것은 한국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오는 나경의 4층¹³⁾에 표현된 24방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24방위는 正北 (방위각 0도)에서 시계방향으로 7.5도 이동한 후 15도씩 分金하여 각 방위를 나타내면 24방위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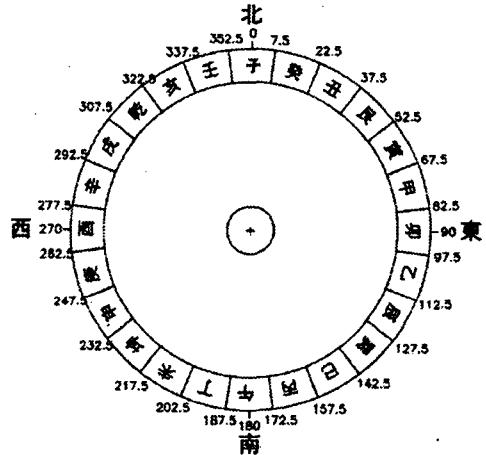


그림4. 본 연구에 적용된 24방위도

* 각 방위에 대한 인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나경의 24방위에 방위각을 함께 표기하여 분석하였음.

12) 坐向 : 집을 배치할 때 背面이坐, 바라보는 前面이向으로坐와向은 나경의 24방위도에서 하나의 선상에 있다. 그림4에서 방위각 0도인 北의 子와 180도인 南의 午는 서로 동일선상에 있으며 坐와向의 관계가 성립된다. 이 방위에서 선택 할 수 있는 좌향은 子坐午向인 南向과 午坐子向인 北向을 취할 수 있으며, 서로마주하는 일직선상에서 2개의 좌향이 성립한다. 따라서 나머지 방위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좌향을 정할 수 있으며, 24방위에서 24 좌향이 성립된다.

13) 나경 4층은 天地의 방위를 나타내는 기본층으로 24방위가 표기되어 있으며, 양택에서 방위 및 좌향을 측정하고 풍수에서 龍의 방위를 측정한다. 정경연, 『정통풍수지리』, 평단. 2003, p145



그림5. 한개마을 배치도

건축물의 좌향은 그림5의 배치도를 중심으로 주거용 건물과 非주거용 건물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건축물의 좌향측정은 주거용 건물의 경우 안채에서 대청마루와 안방, 건넌방이 있는 정침부가 어느 방향을 면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였고, 비주거용 건물은 主 건물의 전면을 기준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한개마을 주택의 전체적인 좌향분포는 남동쪽에서 북동방향(127.5~322.5)의 범위에 이른다. 이러한 분포는 대략적으로 지형방위 축에 해당하는 남서향을 기준으로, 180도 정도의 범위 안에 모든 주택이 분포하되 특정 방향으로 절대다수의 주택이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을 전체주택의 좌향분포는 표1과 같이 나타났다(그림 6 참조). 조사대상 주택 60채 중 艮坐坤向이 28채(46.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丑坐未向(202.5~217)이 18채(30%)를 차지한다. 그 외는 각 좌향별 1-2채씩 나타났다. 이와 같은 좌향분포에서 한개마을의 주택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좌향을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적으로, 마을의 주택들이 좌향을 정하는 기준은 주산과 안산이 만드는 지형방위 축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표1. 주택의 좌향 분포

좌향	채	좌향	채
乾坐巽向 (127.5~142.5)	1	寅坐申向 (232.5~247.5)	2
壬坐丙向 (157.5~172.5)	1	甲坐庚向 (247.5~262.5)	3
子坐午向 (172.5~187.5)	2	卯坐酉向 (262.5~277.5)	2
癸坐丁向 (187.5~202.5)	1	乙坐辛向 (277.5~292.5)	1
丑坐未向 (202.5~217.5)	18	巽坐乾向 (307.5~322.5)	1
艮坐坤向 (217.5~232.5)	28	계	60

그림6의 좌향 분포도에서 주산과 안산의 지형방위 축에 가장 근접하여 전체주택의 76.6%가 좌향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대 다수의 주택이 향하는 범위는 안산의 물리적 범위와 거의 일치한다. 안산을 전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丑坐未向에서 艮坐坤向(202.5~232.5)를 나타내는 주택들이 76.6%에 해당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한, 주택의 좌향은 마을형국이 열린 범위(196~256)내에 포함되도록 배치되었다. 즉, 좌청룡, 우백호 능선이 의

부를 향하여 개방된 부분을 절대다수의 주택들이 (52채, 86.6%)바라볼 수 있도록 좌향을 정하였다. 이렇게 절대 다수의 주택들은 자연방위보다 지형방위가 더 중요하게 작용 되, 안산, 좌청룡, 우백호의 개구부 및 주산으로 이어지는 지형방위에 적응하여 좌향을 정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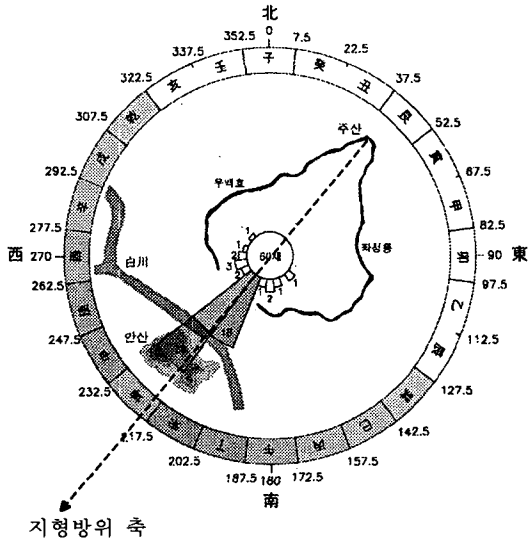


그림6. 주택의 좌향 분포도

(주택의 좌향분포 현황을 24방위도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각 방향에 표현된 숫자는 향하고 있는 주택의 수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6에서 보이듯이 실제로 자연방위상의 남향에 가까운 향을 취한 주택은 불과 몇 채 밖에 되지 않는다. 안산을 바라보는 건축방위의 집중도를 확인해보면, 안산의 높은 봉우리 주변을 향하는 주택이 28채(46.6%), 남쪽 방향의 작은 봉우리는 18채(30%)의 주택이 향하고 있다. 그러나 안산의 높은 봉우리를 기준으로 볼 때, 대부분의 주택이 그 북쪽보다 남쪽에 치우쳐서 높은 봉우리를 향하고 있다. 한편 낮은 봉우리도 그 정상부를 정확하게 향하기보다는 남쪽으로 치우쳐서 향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사실은 지형방위가 만드는 축에서 자연방위상의 남쪽으로 약간씩 치우치면서 좌향을 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지형방위가 우선적인 방위결정 축이 되어 그 방위를 존중하면서 약 간식 자연방위상의 선호하는 방향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방위가 風水적 지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의 분포상황을 나타내는가하는 것은 이러한 조사에서 드러난다. 물론, 이것은 한개마을에서와 같이 가장 전형적인 풍수형국을 갖고 있는 경우 일 때의 결과이다.

5. 건축방위의 특성

여기서는 앞에서 분석한 것과 같은 마을전체의 건축방위 분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건물 또는 특정지역에 따라서 방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검토하려 한다. 분석의 편의상 마을전체를 마을 내 골목길의 분포에 따라 6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A, B, C, D, E, F의 영역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림7 참조) 이러한 지역적 구분은 골목길에 의한 물리적인 구분이지만 마을의 성장, 변화 과정과도 관련이 있다.¹⁴⁾

5-1. 종택 및 중요지정문화재의 좌향

종택과 지정문화재 주택들은 집의 규모 및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적 배경을 강하게 갖고 있으며 마을에서 건축시기가 비교적 오래된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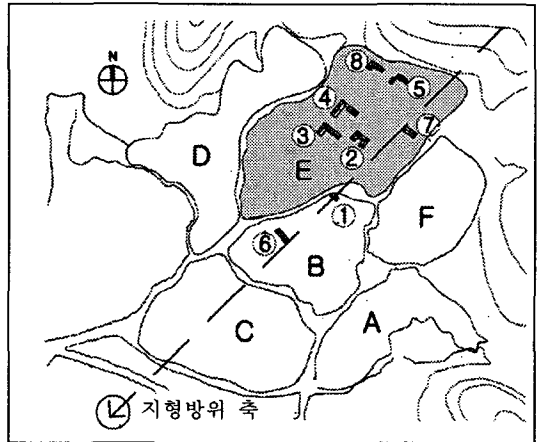


그림7. 종택 및 지정문화재의 위치

14) 한개마을 각 분파별 마을 정착과정은 22世 壽星公의 첫째인 달천공의 후손이 마을중심부에 위치한 입향조 종택이 되며, 달한공의 후손들이 마을 동쪽 A지역에, 달운공의 후손들은 C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다. 하지만 18세기 이후 달한공의 후손들이 출중한 인물의 배출과 경제적 성장에 힘입어 입향 종택 후면인 상부(E지역)로 이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박명덕」, 「영남지방 동쪽마을의 분파형태와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학원박사, 1991. p105~106, 112

이러한 주택들의 배치계획은 방위설정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검토하였다. 마을 중심부에 인접한 주택의 좌향은 艮坐坤向(217.5~232.5)으로 지형방위 축에 따라 좌향을 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 후면에 위치한 소종택인 하회택은 주택의 좌향과 동일하다. (표2 참조)

표2. 주택 및 지정문화재의 좌향

주택명	좌향	비고	건축연도
① 종택	艮坐坤向 (217.5-232.5)	입향 종택	-
② 하회택	(217.5-232.5)	경북민속자료 326호. 소종택	1750
③ 교리택	(217.5-232.5)	경북민속자료 43호	1760
④ 북비택	(217.5-232.5)	경북민속자료 44호	1774
⑤ 한주종택	(217.5-232.5)	경북민속자료 45호	1767
⑥ 진사택	(217.5-232.5)	경북민속자료 124호	1858
⑦ 극와택	(217.5-232.5)	경북민속자료 354호	1852
⑧ 월곡택	(217.5-232.5)	경북민속자료 46호	1911

(주택명에 표기된 ①, ② 등은 그림7에서 각 건물의 위치를 나타냄.)

7채의 지정문화재는 모두 艮坐坤向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재의 사랑채는 안채와 동일한 좌향을 정하면서 안산을 바라보고 있다.¹⁵⁾ 일반적으로 사랑채는 외부의 경관적 요소를 더욱 크게 반영하여 좌향을 정하다보니 안채와 다른 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한개마을 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안채와 사랑채의 좌향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

지정문화재의 위치는 지형방위 축선상의 상부(E지역)에 집중되면서 안산의 수려한 경관을 바라보며 좌향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마을에서 보다 중요하다고 취급된 주택의 입지가 어디이며 그러한 주택들은 어떻게 좌향을 정했는가 하는 점을 보여준다. 지형방위 축선에서 주산에 더 가까운 상부가 보다 선호되는 지역이며, 여기에 지

어진 모든 집들은 방위상의 편차가 없이 동일한 좌향을 취하고 있다. 그 방위의 집중도는 안산의 높은 봉우리 쪽에 좀더 치우쳐 있다.

5-2. 주택의 위치에 따른 좌향

주택의 위치에 따른 좌향은 지형방위 축에 해당되는 마을 중심부(그림7의 E, B, C지역)와 이 방위 축에서 벗어난 마을 영역의 주변부(그림7의 A, F, D지역)의 주택들에 대하여 건축방위를 분석하였다. 우선, 마을 중심부의 주택들을 살펴보면, 주산에 가장 가까우면서 지형방위 축 상부에 해당하는 E지역은 주택 10채 모두가 지형방위 축의 영향을 받는 艮坐坤向에 해당된다는 점은 이미 논의하였다. 그 다음 지형방위 축 중앙부에 해당하는 B지역은 12채의 주택 중 9채가 艮坐坤向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지형 방위 축 하부에 위치한 C지역은 가장 다양한 좌향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16채의 주택 중 5채가 丑坐未向, 3채는 艮坐坤向이다. 그리고 나머지 주택들은 예외적인 좌향을 나타내고 있다. 지형방위 축 선상에서 주산에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경사면의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지형방위의 영향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마을 주변부인 A지역은 좌청룡 능선 아래에 인접해 있다. 이 지역 주택 7채 중 4채가 艮坐坤向을 하고 있다. 또한 A지역 상부에 위치한 F지역은 8채 중 6채가 丑坐未向을 나타낸다. 반면 마을 우백호 능선 아래에 인접한 D지역은 7채 중 5채가 丑坐未向이고, 나머지 2채는 艮坐坤向을 나타내고 있다. 지형방위 중심축선상에 해당되지 않는 A, F, D지역의 주택들은 중심축의 E지역 보다는 더 자유스럽지만 그렇다고 C지역만큼 불규칙하지는 않다. 그리고 E지역 보다는 다소 남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 같이 마을전체를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을 때, 지형방위 축 상부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 外延으로 퍼져나가면서 지형방위를 준수하는 정도가 다소 약화되어지는 경향을 읽을 수 있었다.

15) 마을의 중요지정문화재는 건축연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좌향의 선택은 마을의 지형방위 축에 따라 동일한 艮坐坤向을 취하고 있다.

5-3. 예외적인 좌향의 주택

그림6의 좌향분포에서 76.6%의 주택들이 艮坐坤向에서 丑坐未向(202.5~232.5) 범위에 있으며, 나머지 23.4%의 주택들은 이 범위에서 벗어난 다양한 좌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23.4%에 해당하는 14채의 주택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좌향을 정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림8에서 예외적인 좌향의 주택들은 마을 중심부의 하부(C지역)와 주변부의 좌청룡 능선 아래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마을 상부(E지역) 및 우백호에 인접한 D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C지역에서 예외적인 좌향의 주택 14채 중 8채(57.14%)가 위치하고 있다. 주택의 좌향 변위는 서쪽 방향에 가까운 241~264도에 5채, 子坐午向인 179~180도에 2채 그리고 1채는 동남향인 132도를 나타내고 있다. C지역에서 예외적인 좌향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지형방위 축 하부에 위치하여 그 방위 축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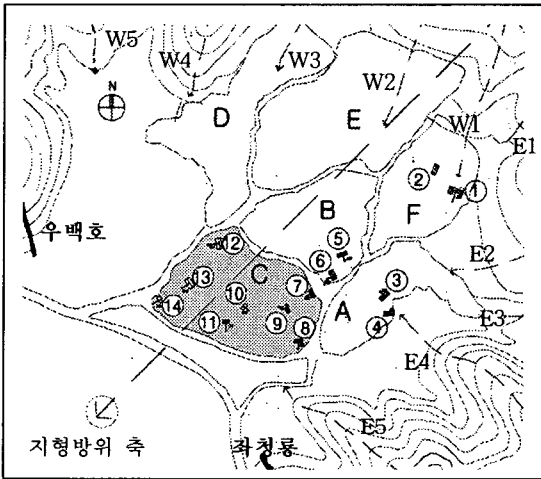


그림8. 예외적인 좌향의 주택분포

그 다음 좌청룡 능선 아래에 위치한 A, F지역의 주택들은 인접한 산에서 내려오는 지형, 지세에 의한 국부적인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고 있다. 즉, 한개마을에서는 좌청룡, 우백호에서 뻗어 내려오는 작은 산줄기들이 있는데, 그 끝자락에 있는 집들은 이러한 국부적지형의 영향을 받는다.16)(그림

8 참조) 그 사례로 A지역 주택 ③은 좌청룡 능선에서 내려온 지세 E4의 흐름을 받아 315도의 巽坐 乾向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주택 ④도 E4의 지세의 영향으로 269도의 卯坐酉向을 하며 우백호 능선을 지나 三峰의 봉우리를 向하고 있다. B지역 하부 동쪽부분에 위치한 주택 ⑤는 169도인 壬坐 丙向을 나타내고 있다.

위와 같이 예외적인 좌향의 주택들은 국부적인 지형방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 좌향을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산을 등지고 안산을 바라보는 향을 취하기보다는 좌청룡 및 우백호 능선 또는 三峰을 바라보는 주택들이 나타나고 있다.

5-4. 齋室 및 碑閣의 坐向

마을에는 5곳의 재실과 1곳의 비각이 있는데, 그 위치는 마을의 동쪽 및 서쪽 능선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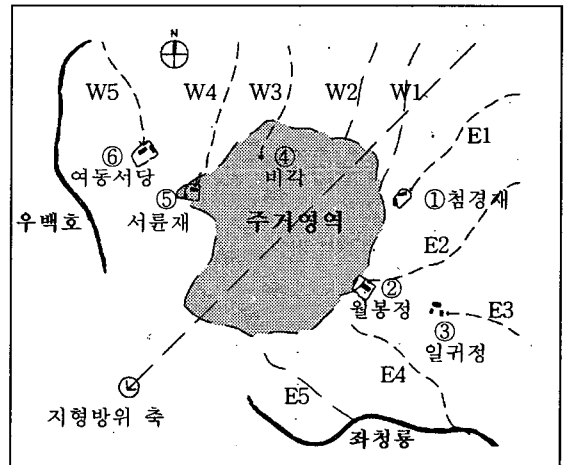


그림9. 재실 및 비각의 위치

그림9에서 좌청룡 능선에는 瞻敬齋. 月峰亭 그리고 一貴亭이 위치하며, 우백호 능선에는 餘洞書堂, 敝倫齋 그리고 비각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건물의 방위적 특성은 주택과 다른 좌향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주산을 뒤로하고 안산을 바라보는 향이 아니라 건물 뒤에서 내려오는 지세의 흐름을 받는 背山의 원칙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 실례로 마을 동쪽에 있는 ①瞻敬齋는 좌청룡 능선에서

의 흐름을 E1에서 E5로 표현하고, 우백호에서 내려오는 능선은 W1에서 W5로 기술하였다.

16) 그림8과 같이 좌청룡 능선에서 비롯된 국부적인 산

내려온 E1지세를 받아 198도를 나타내며 癸坐丁向을 하고 있다. 또한, E2의 흐름을 받은 ②月峰亭은 225도(艮坐坤向) 그리고 산능선에 있는 ③一貴亭은 E3 지세를 받아 276도(卯坐酉向)로 서쪽 능선을 바라보고 있다. 반면 마을 서쪽에 있는 ⑤敍倫齋는 우백호 능선에서 내려온 W4지세를 받아 198도(癸坐丁向)를 나타내며, 산 능선에 있는 ⑥餘洞書堂은 W5지세의 흐름을 받아 150도(亥坐巳向)를 나타내며, 동쪽 산봉우리 향하고 있다. 또한 ④비각은 W3의 지세를 받아 180도(子坐午向)의 좌향을 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재실건축 및 비각의 좌향은 그 정하는 기준이 일반주택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좌향은 형국에 의한 지형방위 축을 따르되 자연방위에 의한 보정을 거쳐서 방위를 정하지만, 재실 및 비각은 이 들 건축물이 위치한 터의 局部적인 지형방위에 따라 좌향을 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背山의 원칙을 기본으로 터의 지형, 지세를 살펴 좌향을 정하는 독자적인 방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이러한 재실과 비각이 사람이 상주하여 거주하는 곳이 아니므로 지형방위 또는 자연방위를 따르려는 의지가 약했어도 무방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6. 종합분석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전통마을의 입지와 배치계획에 나타난 방위적 특성을 성주 한개마을을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건축방위는 자연방위 와 지형방위에 나타난 상관적 요소를 어떻게 반영하여 좌향을 정하고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개마을에서와 같이 마을형국이 가장전형적인 경우, 이 지형방위 축이 건축방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76.6%의 주택이 이 방위 축에 따라 좌향을 정하고 있었다.

둘째, 그 76.6%의 주택은 마을형국이 열린 방향(남서향)에 있는 안산을 바라보며 좌향을 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46.6%인 28채가 艮坐坤向인 남서향(217.5-232.5), 30%의 주택은 남쪽으로 15도 치우친 丑坐未向(202.5~217.5)을 하고 있다.

셋째, 지형방위 축을 우선적으로 따르되 자연방위의 선호방향인 남향쪽으로 약간씩 치우치는 경향

을 보여준다. 그 치우치는 정도가 크지는 않지만 지형방위 원칙이 자연방위에 따라서 보정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넷째, 마을의 모든 지정문화재는 일정한 위치와 좌향을 나타내는데, 그 위치는 지형방위축 상부(E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또한 지정문화재 주택은 모두 艮坐坤向(217.5~232.5)의 범위에 들면서 지형방위 축을 따라 좌향을 정하고 있었다.

다섯째, 지형방위 축을 따르는 주택들의 집중도를 지역적으로 보면, 지형방위 축 중에서도 주산에 가까운 상부(그림8의 E, B지역)에 31.6%의 주택이 분포되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마을 영역의 주변부 및 마을입구에 가까운 C지역은 지형방위 축 영향을 적게 받고 있다. 그 주변부는 좌청룡, 우백호에서 내려오는 국부적인 지형 축에 가깝기 때문에 그 국부적인 지형방위에 영향을 받아서 좌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섯째, 비 주거용건물인 재실건축 및 비각의 건축방위는 그 정하는 기준이 주택과 다르게 나타났다. 이들 건축물은 마을형국의 지형방위 축에 속하지 않으며, 주변부의 위치에 영향을 받아서 좌향을 정하고 있다. 즉, 건축물 터에 대한 背山의 원칙을 따르려는 경향이 크게 작용되어 독자적인 건축방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한개마을에서와 같이 풍수적 정형성이 강한 마을에서는 지형적 상황이 마을건축방위결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건물의 위치, 역사성, 주변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변화를 취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일반적 상식으로서만 인식하였으나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그 방위의 변화의 폭과 원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가장 전형적인 한 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이 연구를 하나의 기초 자료로 삼아 風水形局이 다르고 자연 및 지형방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 건축방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참고문헌

1. 김일진, 전통건축물 보존지구 조사보고서, 문화재 관리국, 1988
2. 연세대학교 건축역사. 설계이론연구실, 성주 한개마을,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3. 박명덕, 영남지방 동쪽마을의 분과형태와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학위논문. 1991
4. 전봉희. 조선시대 씨족마을의 내재적 질서와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5. 최원석, 풍수의 입장에서 본 한민족의 산 관념,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2
6. 박명덕 "『조선시대 주거건축의 형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지방의 한개, 묘골 마을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9권 10호 통권60호 1993.10
7. 주은영, 김순일. 한개마을의 당내와 위계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제15권 제2호 P247-250. 1995.10
8. 김철중, 문중조직을 통해서본 동쪽마을권의 공간구성과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7
9. 이진영, 김승제, 전통마을의 배치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경북 봉화군 황전마을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제18권제1호 P323-329. 1998.4
10. 이용희, 성주한개마을 입지의 풍수적 해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4권8호 통권 118호 P145-154. 1998.8
11. 강선중, 금계포란형 국면의 마을공간구성방법에 관한 연구, 명지대 박사학위 논문, 2000
12. 최원석, 영남지방의 裨補, 고려대 대학원 박사, 2000
13. 최창조 외 9인,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민음사, 1994
14. 신경준 지음. 박용수 해설, 산경표, 푸른산, 1995
15.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군誌. 1996
16. 이명식, 경북성주의 한개마을 문화, 태학사, 1997
17. 서선술, 서선계 저/ 김동규 역, 人子須知, 명문당, 1999
18. 신평 저, 신. 나경연구, 동학사 1999
19. 호순신, 김두규 역해, 지리신법, 장락, 2001
20. 성주군, 성주문화재편람, 2001
21. 정경연, 정통풍수지리, 평단. 2003,

Characteristics of Directional Orientation in Location and Site Design of Hangaee Village, Sungjoo County.

Lee, Hyun Byung

(Assistant Professor, Bucheon College)

Kim, Sung Woo

(Professor, Yonsei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of the problem of direction and orientation of site design of a traditional Korean village. The research focus on how the directional orientation of each houses adapt the direction of the flow of surrounding mountains. The direction of mountains worked as a prime rule which most of the houses(76.6%) observed the same direction as their own orientation. While the central part of the village followed the direction of mountains more strictly, however the houses on the periphery area tend to be more free from the direction of mountains.

This houses of the periphery respect either the direction of the mountain flow right behind the house or faces toward the south.

keywords: Location and Site Design. directional orientation of nature. the directional orientation of the topography. the directional orientation of the architecture.
